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종교개혁기념주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79. 피난처 있으니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계심이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 이 개혁의 주일 아침에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생기 없는 율법으로 팍팍해져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은 재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사로 지쳐있습니다.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피할 곳이 되어 주십시오.

역사의 고비마다 주님은 작은 일꾼들의 진실함을 들어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부족함과 허물에 좌절하고 낙망만 하지 말게 하시고 그를 뛰어 넘을 수 있는 힘을 간구하는 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만을 바라보는 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헤아리는 주님의 사람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롬3:23-24 인도자

♠ 교 독 문 43. 마태6장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조관행 집사 II. 장영숙 전도사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336.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다함께

성경봉독 I. 요일4:16-21 인도자

II. 막10:17-22 이증자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사랑에 무너지지 않은 사람 김기석 목사

II. 내려 놓음 김재흥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505.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율법의 짐에 억눌리지 마십시오. 율법으로 누군가를 억누르지도 마십시오. 약삭빠른 계산을 그만 두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온갖 인간적인 잣대와 계산법으로 사람들 사이를 휘젓는 인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사람들을 안아주는 품이 넓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려움과 시험이 닥칠 때마다 한량없는 주님의 품을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10월 신앙강좌	11월 기도의 밤
강사 : 김준우 박사	인도 : 김재흥 목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김재흥 목사	인도자

10월	영접위원	구성실	김중수	박범희	이순정	최숙화	박미영
	헌금위원	한완식	박창운	하현철	유영남	박혜경	박홍재

여덟 가지 악에 관해서 5

탐욕에 관하여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 형태의 탐욕의 본모기를 들어 정죄합니다. 게하시는 과거에 소유하지 못했던 재물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스승이 그에게 물려주려 했던 예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선지자의 저주를 받아 나올 수 없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왕하5:27 참조). 가롯 유다는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버렸던 돈을 다시 취하려 했기 때문에 타락하여 선생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무리에서 축출되었고, 목을 매어 인생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마27:5 참조). 셋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이 번 돈 중 일부를 숨겨 두었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 죽었습니다(행5:1-10 참조). 신명기에서 모세는, 세상을 버리기로 약속했지만 믿음이 부족하여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신20:8). 이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증언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떠난 우리는 이러한 본보기들을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부인한 상태에서 전쟁에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람들을 복음서에서 가르친 완전함에서 등을 돌리게 해서는 안 되며,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망설임 때문에 그들을 겁쟁이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탐욕스럽고 교활한 사람들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행 20:35)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왜곡합니다. 그들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마19:21)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도 왜곡합니다. 그들은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부를 소유하고서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더 복되다고 판단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의 가난을 받아들여 스스로 일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지 않으며 궁핍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한 세상을 부인한 것도 아니요 수도적 완덕에 이른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행20:34 참조).

스스로 일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구제하는 사람은 수도 서원을 성취하며 사도 바울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재산을 나누어준 후에는, 바울과 함께 “주리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으면서”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고후11:27). 만일 바울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완덕에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공적인 지위를 멸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행22:25 참조). 또 만일 사도들이 자신의 노력과 이방인들이 바친 헌금을 의지하여 사는 것보다 자기가 가진 재산에 의존하여 사는 것이 더 복된 것이라고 간주한다고 생각했다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형제들은 집과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에게 바치지 않았을 것입니다(행4:34-35 참조).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라고 시작하여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라는 말로 끝맺는 구절에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제공합니다(롬15:25-27). 바울 자신도 종종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힘들게 여행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손수 일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데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제공하는 생필품을 받았다고 말하며(고후11:9),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라고 편지했습니다(빌4:15-16). 그렇다면,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었다고 해서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바울보다 더 복됩니까? 물론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명령과 사도들에게 기초를 두고 세워진 교회의 관습을 따르려 한다면, 우리 자신의 개념을 따라서는 안 되며, 또 옳게 거론된 일에 그릇된 의미를 부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믿음이 없는 견해를 무시해야 하며, 복음의 엄격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생활의 규율을 지키고 이 세상을 부인하면서 교부들의 발자취를 따라 살 수 있을 것입니다.(계속)

—중세 초기의 수도사인 존 카시안의 글입니다. 수도사들과 수도원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런 사정은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탐욕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불치병입니다.

■ 마/음/으/로/위/는/글

인생 거울

세상에는 변치 않는 마음과
굴하지 않는 정신이 있다.
순수하고 진실한 영혼들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진 최상의 것을 세상에 주라.
최상의 것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사랑을 주면 너의 삶으로 사랑이 모이고
가장 어려울 때 힘이 될 것이다.
삶을 신뢰하라, 그러면 많은 이들이
너의 말과 행동을 신뢰할 것이다.
마음의 씨앗들을 세상에 뿌리는 일이
지금은 헛되이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
왕이든 걸인이든 삶은 다만 하나의 거울
우리의 존재와 행동을 비춰 줄 뿐.
자신이 가진 최상의 것을 세상에 주라.
최상의 것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매들린 브리지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최인환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박정오 장민숙 김철수 유영남 윤석철 장혜숙 김준호 곽혜자 오진훈
 노순옥 임창선 최종원 조문규 진정숙 최숙화 김정길 김훈동 박정숙
 고광승 이춘희 임원민 임수연 최인환 최미선 임보람 조병무 송양진
 김민주 무명1

월정헌금:

이지훈 김현영 정원석 황원순 황자순 이정은 조병주 이봉배 백숙현
 조항신 김승현 김수진 권 순 윤정화

감사헌금:

김기석 윤석철 장혜숙 방문성 박혜경 문금석 김용길 최영혜 장재영
 김재영 권미숙 유경민 오진훈 노순옥 류 형 이경화 정완수 김재광
 박영균 시므온 선교회 나오미 선교회

생일감사헌금: 최숙화 이종현

100주년 기념 사업 헌금: 김철수 유영남 김 극 (누계- 8,750,000원)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영남	차혜심	김정섭	연 합 속 회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이춘희	정진경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박경선	
갈릴리	조병주	박애순	안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백묘현	
시온	박효선	허정윤	교회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장혜숙	이순정	
빌립보	구성실	박현우	안길상	
가버나움	구명자	안홍숙	박찬정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정옥영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김수진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유혜경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박수경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종교개혁기념주일** : 오늘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489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지금도 지속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2. **신앙강좌** : 오늘 오후 집회는 김준우 박사(한국기독교연구소 소장)께서 종교개혁 신앙에 대해 강의해주십니다.
3. **기도의 밤** : 11월 1일(수) 오후 7시 30분에 11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최선을 다해 모이시기 바랍니다.
4. **추수감사주일** : 다음 주일(11월 5일)은 우리 교회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2부 연합으로 11시에 드립니다. 정성껏 감사헌금을 준비해주시시오. 오후 집회는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의 가을걷이로 모이겠습니다.
5. **연합속회** : 11월 3일(금)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예배인도 - 나사렛 속 식사준비 - 빌립보 속
6. **봉사** : 종묘 급식봉사가 11월 1일(수) 오전 11시 15분에, 애니아의 집 목욕봉사가 3일(금) 오후 12시 30분에 있습니다.
7. **환영** : 한국기독교연구소 소장인 김준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소속 목사가 되셨습니다. 우순덕 사모님은 평택 기지촌 할머니들을 돌보는 '햇살 센터'의 소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8. **담임목사** : 31일(화)부터 11월 2일(목)까지 열리는 삼남연회 준회원 영성 교육에 참가하여 말씀을 전하고 오겠습니다.
9. **별세** : 지난 26일 문복순 권사님의 아드님이신 최재운 성도가 별세하여 장례를 엄수하였습니다.
10. **신앙실천** :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그리고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십시오.

* 식당 봉사 : 베다니 속 * 헌화 : 임종우 김윤정 (결혼기념일)

<새교우 소개> 2634 연태호 소속: 청년부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